



타이완 차 문화 역사

타이완 차 문화에서 배운다

- ① 타이완 차의 어제와 오늘
- ② 세계시장 넘보는 타이완 차

정부·제다업체간 끊임없는 연구 노력

대표차 국책사업 선정 고급화 전략 구축 외국인 상대 차발견학, 제다체험 등 운영 엄격한 품질관리 통한 수출시장 확보

차 전문가거나 인터넷 차 판매코너를 살펴보자. '청차' 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양의 차에는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타이완 차는 우리나라 연간 차 수입량의 20%에 달하는 양이 수입·소비되고 있다. '보따리 장사' 등에 의해 무허가 수입되는 차나 차인들이 여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입해 오는 양을 따져본다면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고급 차'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차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타이완 차문화에서 우리 차계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중국의 차문화가 건너온 후 불과 200여년에 불과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타이완 차문화. 그 저변에는 ▲정부 주도의 차문화 저변 확대 ▲연구기관·제다업체의 다양한 옹호·제다법 개발 ▲고급차 이미지 구축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수출 시장 확보 ▲다예(茶藝)와 다구(茶具) 발달로 인한 차문화 연구 확산 등의 인프라가 깔려 있다.

물론 타이완 차문화 발전의 가장 큰 원인은 천혜의 자연여건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타이완 정부와 제다업체들의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타이완 차문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타이완 정부는 1903년 타오위엔현에 타이완 유일의 차 연구소인 '행정원농업위원회 차업개발장'을 설립, 차 연구와 보급·교육하고 있다. 또한 타이완 옹호자를 대표하는 동정옹호와 목척철관을 등을 국책사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 또한 통탄(龍潭) 관광차밭의 '에메이지역 차밭 전시장' 등을 설립해 관광객들이 타이완 차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다업체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시장개척은 오늘날 타이완 차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산포종이나 동정옹호, 동방미인 같은 세계적인 명차를 만들어나 '고급차'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수출 시장을 확보했다. 이미 일본과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홍콩 러시아 등에는 타이완 차 판매점이 개설돼 있다.

이러한 타이완 차계의 세계시장 진출은



문산 포종차의 고향인 타이완 평림(坪林)에 세워진 평림다업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타이완 차문화를 설명하는 안내원. 타이완 정부와 차계는 세계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견학·제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제다업체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들 업체들은 늘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차발견학 및 제다체험 프로그램, 무료 시음장 등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차를 알리고 있다.

차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다관의 60~70%는 타이완에서 생산된 것이고, 유명한 도자기예술포인 타이베이현의 잉개(鶯歌)는 이미 국내 차인들 사이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타

이완 다구의 국내시장 잠식과 일부 차회·수입상 등을 통한 다예교류 등은 타이완 차를 국내에 소개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 시장 개척에 이어 세계 차시장까지 넓히고 있는 타이완 차문화. 거스를 수 없는 이 거대한 조류를 국내 차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까? 우리 차계에 던져진 또 다른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글·사건·여수영 기자

조선시대 ㉗



한일합방되며 일제 주도아래 차 관리

일본내 여성 중심 다도활성, 식민지 교육에도 영향

한일 강제합방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지니 제의(祭儀)도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사원(寺院)도 폐쇄해져 우리 차의 명맥은 사찰이나 민간에서 간신히 이어졌다. 일제는 처음부터 관(官) 주도가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그들의 차종(茶種)을 들여와 삼남(三南) 일대의 차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등산을 위시해 정읍과 사철 주변 야생차까지 일제가 손대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차의 현황과 역사적 사실이나 유품들을 조사해 정리하는 작업도 빠뜨리지 않았다.

당시의 일본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퇴보의 길을 걸었던 다도가 차츰 다시 지식인 중심으로 일기 시작해 여자학교에서부터 다도교육을 시작했다. 이른바 천가(千家) 증가제(家制)가 다시 힘을 얻고 교육에 힘써서 다도가 이전의 무장(武將)이나 문인(文人) 등의 남성적인 수도적(修道的) 기풍이 여자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차문화가 여성 중심이 된 것은 이러한 영향도 있다.

① 일본 초취현(鳥取縣)에서 제다 경험이 있는 미기시삼(尾崎市三)이 무등산 중심사 뒤편에 야생 차밭을 개원해 증제차를 생산했다.

② 정읍다원은 소천영수(小川英樹)가 차를 재배해서 천원차(川原茶)를 생산했다.

③ 미기시삼이 나주 불회사 경내에 야생차밭을 개발했다.

④ 역시 미기시삼은 장흥 보림사 주변에도 차밭을 개발했다.

⑤ <해동죽기>에 서울 노랑진 봉의정에서 조제 성을 가진 사람이 차를 팔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⑥ 일본인 도변창(渡邊彰)은 총독 부 종교과에 근무하면서 '조선의 다업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며 다업과 다례의 진흥을 위해 제다기술 도입을 권장했다.

⑦ 산하이태랑(山下伊太郎)이 쓴 차기행문이다.

⑧ 장흥군 관산에 있는 천관사(天冠寺) 주변에서 위씨들이 만드는 작설차와 해남 대문사의 작설차는 <동다승>에 나오는 명차다.

⑨ 구례 화엄사의 주지 정병현은 법호(法號)를 만우(曼宇)라 하고 장죽전의 차밭에서 여러 종류 차를 생산했다.

⑩ 장근(1854~1926): 다업검사에 필요한 조제를 만들었다.

⑪ 파나마 민국박말회에 태평후과, 무록, 혜명차 등을 출품, 입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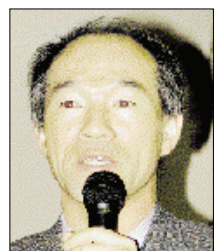
⑫ 연형(1876~1936): 대만 차인으로 대릉과 일본을 체험하고 상해에 살면서 <대만다사>를 쓰고 그 속에 명다와 다시 수십 수를 실고 있다.

⑬ 안휘성 육안에서 제3농업학교를 창설하여 다업전문으로 했다.

⑭ 서가는 청대 차인으로 연차송객(잡기) 이화집(다사)을 썼다.

⑮ 시악은 <범천총록(梵天叢錄)>을 썼는데 보이차·무이차·용정차 등에 관해 기록했다.

⑯ 지식인들이 다도를 여성 교육에 접합시켜 여성 다도연구가 급증했다. ■성규대예제다도학



'전통 수제차' 대량생산 길 열린다

양원모 교수팀, 차학회 세미나서 뒤음기 개발과정 발표

우리나라 전통 수제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다 기계가 개발된다.

양원모·박금주·김주현 교수(순천대 농업생명과학대학)와 최정 연구원(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 연구팀은 지난해부터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한국 전통차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뒤음기' 개발에 주력해 왔다. 연구팀은 11월 19일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2005 한국차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

리나라 전통수제차 가공의 특징과 기계화'라는 논문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우선, 우리 전통 수제차는 구수한 향과 담백한 맛을 나타내며, 이는 뒤음(살청)과 볶음(건조)의 방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250~350℃의 고온에서 단시간 볶는 방식은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도 차의 차가운 성질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하동과 보성, 순천 등의 제다회

사에서 사용하는 뒤음기의 성능과 열 변화 과정, 찻잎의 수분함량 변화 등을 직접 계속함으로써 전통 뒤음차 공정요인을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제차의 맛을 내면서도 대량으로 찻잎을 처리할 수 있는 뒤음기를 개발했다. 뒤음기는 직경이 각각 40·60·80cm의 반원통틀레형으로, 내부에는 찻잎을 섞을 수 있는 물레형 축과 날개가 장착되어 있고 회전축의 회전속도와 뒤음통 바닥 온도 등을 나타내주는 조절 판별, 가스버

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시작품을 제작해 제다 실험을 해 본 연구팀은 "시작품 뒤음기는 고온에서도 찻잎을 태우지 않고 손쉽게 가공할 수 있으며 완제품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 맛과 향에서도 전통 수제차에 크게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음통 가열판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고 ▲수분에 의해 찻잎이 기계 바닥에 들러붙는 문제 ▲뒤어진 찻잎이 회전축과 교반 날개에 걸려 나오지 않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국차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양원모 교수는 "뒤음기 개발로 제다업체들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손쉽게 높은 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1910 한일 강제 협방 1911 무등산 다원 ① 1913 정읍 차재 ② 1916 불회사 경내 차밭 ③	1914 장근(張君) ④ 1915 차전문 연구 ⑤ ⑥ 연형(連興) ⑥	1921 경제공황으로 생산격감 ⑦ 지식인들의 다도 이해 ⑧
1919 보림사 주변 차밭 ④ 1920 봉의정의 매다 ⑤ 조선의 다업에 대하여 ⑥	청대	강호시대
1922 <만선지방다업시찰기(滿鮮地方茶業視察記)> ⑦ ⑧ 작설차 ⑧ ⑨ 화엄사 ⑨	1923 다학파 설차 ⑩ 1924 서가(徐君) ⑪ 1925 시악(時岳) ⑫	

예악 주문 신형 문의
 전화: 02)722-7777 / 팩스: 02)722-7845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7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어낸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월간 '다도' 정기구독자에게는 상·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드디어 발간되어 판매 중입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발행인) 홍승희 외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매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의 만남은 유익한 잡지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2005년 11·12월호 주요 내용

회보 | 1 몽골 자이산국립공원 노천대불 불복사 및 기원 한·몽 불교문화진흥 세미나 2 미국불교의 현황 속으로 미국에서 세계 각국의 불교를 만나다

2005년 송년칼럼 | 장년 생명나눔은 사년처관(四念處觀)의 이해에서부터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A에서 Z까지

총법 스님의 불교의 생사관(生死觀)과 해탈관(解脫觀)

특별기획 | 미국불교의 현황 속으로 1 미국 내 개척불교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세계 석학으로부터 이 땅의 불교 발전과 불교의 미래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다.

2. 미국 내 세계 주요 불교교구의 활동현황

3. 특별 인터뷰 | 미국 콜롬비아대학 로버트 서먼 교수

장로대담 | 활안의 선지자에게 듣는 수행한담

6. 수원 팔달선원 조실 범행(梵行) 스님

황기나는 사람의 모습 | ⑥ 경성지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불교부서' 수행공동체 '백장선원' 해외통신 | 영국에서 불자로 사는 기쁨 - 사라 쇼 박사

특집 | 미래불교의 주역, 중·고불교화생회를 살리자
 오늘의 불교가 있기까지 든든한 지양분이 되었던 지난 불교화생회의 활동상을 통해 최근 정세인물로 있는 중·고불교화생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조명해 본다.

1. 중·고불교화생회의 어제와 오늘
 - 서울·경기지역 활동현황, 부산 불교화생운동, 경주불교화생회

2. 중·고불교화생회의 현주소

3. 청소년불교 활성화 위한 방안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가 시급하다
 - 청소년 문화를 이해해야 학생회가 발전한다

대미기획 | 절집 공양간 맛 풍경 ⑥ - 서울 인양암

문화기획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서

고전 읽기의 즐거움 | 중국 서사불교의 기록, 부대사의 계승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